

태양가족

2010 Spring Taeyangmetalindustrial

TRUST CONFIDENCE DEVOTION

신뢰 · 확신 · 헌신



온 溫

고 故

지 知

신 新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 중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는 구절이 있다.

새 것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
'옛 것'에 대한 관심과 배움의 자세가
옛 분들의 지혜로운 노하우와 철학이
새 생명을 틔우며 한창 푸름을 뽐내는 나무들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Contents

- | | | |
|----|----------|------------------------|
| 04 | 창업주의 가르침 | 信賴에 報答하는 企業 |
| 06 | 창립기념사 | 창립 제56주년 기념식 |
| 08 | 회장님 사외동정 | 한국노총 안산지부 신년인사회 참석 外 |
| 09 | 태양뉴스 | 아이티 지진피해 후원 모금 外 |
| 12 | 온고지신 | 명예회장님의 말씀 및 경영노하우 |
| 14 | 경영혁신프로젝트 | 배영철 사장 |
| 16 | 기획특집 I | 전기자동차 |
| 18 | 기획특집 II | 품질 및 불량률 제로 도전 / KOLAS |
| 20 | 태양인 | 축구동아리 FC SUN |
| 22 | 태양과 나 | 현성운 전무 |
| 24 | 협력업체 탐방 | 태은상공 |
| 26 | 문화와 예술 | 봄향기와 잘 어울리는 오페라 음악 |
| 28 | 발길 따라서 | 여강 신록사 |
| 30 | 사우동정 | |





창업주의 가르침

信賴에 報答하는 企業

一九七七年 三月 三日

신뢰란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부 연수를 할 때면 2인 1조로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 의지해 각종 장애물을 걸어가는데 테스트를 하며 신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케팅,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처방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 노사간의 신뢰, 부서간의 신뢰, 고객과의 신뢰 등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큼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불확실하고 복잡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신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조직의 신뢰는 관계의 신뢰에서 출발하고 관계는 개인의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태양금속공업의 임직원 모두는 스스로 자신의 신뢰성을 높여 고객과 주주, 나아가 정부,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창업주의 가르침

信賴에 報答하는 企業

一九七七年 三月 三日

신뢰란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부 연수를 할 때면 2인 1조로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 의지해 각종 장애물을 걸어가는 테스트를 하며 신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케팅,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처방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 노사간의 신뢰, 부서간의 신뢰, 고객과의 신뢰 등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큼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불확실하고 복잡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신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조직의 신뢰는 관계의 신뢰에서 출발하고 관계는 개인의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태양금속공업의 임직원 모두는 스스로 자신의 신뢰성을 높여 고객과 주주, 나아가 정부,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합니다.



친애하는 태양가족 여러분!

지난 3월 1일은 우리 회사가 창업한지
5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뜻 깊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그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신 태양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6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 태양금속의 역사는 숏한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과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고, 풍납동 시절 수재 및 화재로 인한 피해, IMF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금융위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뎅이처럼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태양금속의 이상(理想)과 혼(魂)으로 지켜온 우리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일구는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창업주이신 故 한은영 명예회장의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겨 보며 지난 세월 선배들이 흘린 소중한 땀방울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종합 단조 및 가공회사로 우뚝서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산, 감원, 감봉 등의 비상경영을 통해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루었고, 저희 태양금속은 전 임직원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 회사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936억원으로 계획목표 2,070억원에 6.5% 미달하였고, 이는 2008년도 실적대비 6.6% 감소한 것입니다. 해외법인의 경우는 2009년 매출액은 285억원으로 계획목표 309억원에 8% 미달하였습니다. 다행히 10월 이후부터 정부의 세제혜택 등 자동차시장의 활성화와 전임직원의 원가절감 등의 노력으로 순이익은 24억원을 올려 2010년 경영계획 수립에 다소나마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최근 원부자재 상승 및 고유가, 금리상승, 세제지원 종료 등 금년에도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여건은 그리 순탄하진 않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경영여건을 핑계로 피동적으로 기다려서는 결코 경쟁자들을 앞서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신제품 개발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의 안일한 사고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

56th Anniversary

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규 개발품에 대한 납기 미준수, 지속적인 파렴치 불량발생, 신제품 시장개발 저조 및 RFQ 수주를 미흡 등이 갈 길 바쁜 우리의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선각자의 신념이야말로 진정한 창업정신의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우리 태양금속은 최근 경제위기를 벗어나 다시 도약과 발전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배영철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글로벌기업으로서 위상을 떨치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하여 새롭고 강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경영방침인 품질우선, 원가혁신, 미래창조를 위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기업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사례를 보더라도 얼마나 품질이 중요한지를 메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요타는 반세기에 걸쳐 자동차의 품질개선에 전력투구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탄탄한 신뢰와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GM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자 성장중시 경영을 펼쳐 품질중시 경영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로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가 확고해야 합니다. 품질문제는 '의식과 정성'의 문제입니다.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일한 생각과 정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품질문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 임직원이 품질부서의 한 일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결점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용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인식전환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원가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금리, 원자재, 환율, 유가변동 등 불확실한 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기존 성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원가혁신입니다.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의 의미듯이 원가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구축하여 획기적인 원가혁신을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태양금속의 미래는 한층 더 밝을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기업으로서 실력과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조 및 가공분야

에서 세계 1인자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태양가족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자세를 갖추어 일본, 유럽 뿐만 아니라 빠르게 따라오는 중국, 인도 및 신흥국가의 후발업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제품은 국내 뿐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통하지 못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환경관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신소재 제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 세계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태양금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사업계획 목표를 꼭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매출목표는 3,251억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태양가족 여러분의 역량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본 사에서는 글로벌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태양 가족주의 문화의 계승 발전과 부서간, 상하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미래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친환경적인 미래 성장산업 진출로 한계산업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외법인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자립도 향상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및 수익구조 개선에 앞장서 2010년도 태양금속의 사업목표를 꼭 달성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태양가족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강자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약자는 패배라는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태양금속은 위기를 극복하여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서 진정한 태양금속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시장과 글로벌기업을 향한 태양금속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태양금속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신념을 가지고 태양금속 56년의 역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힘차게 전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태양금속의 도약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태양가족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기근속 및 사내외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태양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님 사외동정

1월27일(수)



한국노총 안산지부 신년인사회 참석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수) 한국노총 안산지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수) 한국노총 안산지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수) 한국노총 안산지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1월28일(목)



중국 연대수출가공구 우덕평 부주임일행 내방
지난 1월 28일 중국 연대수출가공구 우덕평 부주임 일행은 안산상공회의소(한우삼 회장)를 내방하고 상호 우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연대지역은 우리 회사 연대법인이 진출해 있는 곳으로 한우삼 회장은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운영중인 연대사무소에 물심양면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2월5일(금)



안산공대 제14회 학위수여식 참석
한우삼 회장은 지난 2월 5일(금) 안산공대 체육관에서 진행된 안산공대 제14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수여식에는 강성락 안산공과대총장을 비롯하여 내빈 및 졸업생, 축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2월5일(금)



안산나이트시티홀 기공식 참석
지난 2월 5일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25시 시청(Night City Hall)' 기공식에 참석했다. Night City Hall은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하며, 2011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2월8일(월)



안산1대학 산학협력감사패 수상
지난 2월 8일(월) 한우삼 회장은 안산1대학 산학협력우수기관 총장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감사패는 안산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진한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협약사업 및 맞춤형 산업체 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학생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3월25일(목)



제37회 상공의 날 및 제20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 참석
지난 3월 25일(목) 14시 안산상공회의소(한우삼 회장) 4층 대강당에서 제37회 상공의 날 및 제20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업 도시라는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경영, 기술, 근로 부문 및 지난 37회 상공의 날 관련 수상자도 함께 시상하여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3월30일(화)



제92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참석
3월 30일(화) 07:30 안산상공회의소와 안산시 공동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경제'란 주제로 안산시 사동 소재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92회 최고경영자조찬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우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글로벌경영위기 여파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상황을 유럽 일부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출구전략과 미중간의 갈등 등 적지 않은 근심거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이날 조찬강연회에는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기업 CEO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TAEYANG 2010.02~2010.04

NEWS

우리 회사에는 지난 세 달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회사의 이런저런 소식... 한눈에 알아보자!

2010.01.29 아이티 지진피해 후원 모금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의 재난 복구 및 재해민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열었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아진 기금은 지난 2월 22일(화)에 굿네이버스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아이티 지역의 식수, 의약품, 식량 등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재건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0.01.30 (주)동부제철 선재사업부문 Royal 고객사 인증패 전달식



우리 회사 한우삼 회장, (주)동부제철 선재사업부문 이수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제철 선재사업부문 Royal 고객사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수일 사장은 (주)동부제철의 최우수 고객으로서 향후 동반성장의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하고자 Royal 고객사 인증패를 전달한다고 밝히며 인증패를 전달하였다.

2010.02.25 제34회 노조 대의원 대회



우리 회사 송병천 노조위원장 외 30여명과 대덕GDS, 남양공업, TRW 등 외부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5일 제34회 노조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2009년도 주요 활동 보고, 회계감사 보고, 세입세출 계산서 승인을 포함하여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과 노조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원만하게 가결되었다. 송병천 노조위원장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조합'이라는 2010년 목표 아래 '대화하는 조합', '실천하는 조합', '달성하는 조합'이라는 조합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서클 지원 확대, 월 2회 팀별 간담회 등 조합원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10.03.08 창립기념식



냉간 단조 제품 생산 업체인 우리 회사는 2010년 3월 8일 창립 제56주년을 맞이했다. 1954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일괄 공정체제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에 필수적인 고정력 볼트를 비롯한 각종 냉간 단조 제품을 국내 자동차 업계 및 관련회사에 공급하고 있음은 물론 글로벌 경영의 일환으로 미국의 GM자동차와 일본의 마쓰다자동차를 비롯한 해외 유수한 자동차 업체에도 제품을 직접 공급하며, 그 외 일반 냉간 단조 제품도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 3월 8일 진행된 기념식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111명에 대한 표창과 최우수 부서 및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한우삼 회장은 기념사에서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명제가 있다. 태양금속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신념을 가지고 태양금속 56년의 역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태양금속의 도약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태양가족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월27일(수)



1월28일(목)



2월5일(금)



2월5일(금)



2월8일(월)



3월25일(목)



3월30일(화)



한국노총 안산지부 신년인사회 참석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수) 한국노총 안산지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회장은 지난 1월 27일(수) 한국노총 안산지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한국노총 안산지부 2010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축사를 통해 "2010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및 신년인사회를 맞이하는 근로자 여러분에게 축하"를 전하고 "노사가 일심동체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경쟁력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중국 연대수출가공구 우덕평 부주임일행 내방

지난 1월 28일 중국 연대수출가공구 우덕평 부주임 일행은 안산상공회의소(한우삼 회장)를 내방하고 상호 우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연대지역은 우리 회사 연대법인이 진출해 있는 곳으로 한우삼 회장은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운영중인 연대사무소에 물심양면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안산공대 제14회 학위수여식 참석

한우삼 회장은 지난 2월 5일(금) 안산공대 체육관에서 진행된 안산공대 제14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수여식에는 강성락 안산공과대총장을 비롯하여 내빈 및 졸업생, 축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안산나이트시티홀 기공식 참석

지난 2월 5일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25시 시청(Night City Hall)' 기공식에 참석했다. Night City Hall은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하며, 2011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안산1대학 산학협력감사패 수상

지난 2월 8일(월) 한우삼 회장은 안산1대학 산학협력우수기관 총장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감사패는 안산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진한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협약사업 및 맞춤형 산업체 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학생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제37회 상공의 날 및 제20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 참석

지난 3월 25일(목) 14시 안산상공회의소(한우삼 회장) 4층 대강당에서 제37회 상공의 날 및 제20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업 도시라는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경영, 기술, 근로 부문 및 지난 37회 상공의 날 관련 수상자도 함께 시상하여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제92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참석

3월 30일(화) 07:30 안산상공회의소와 안산시 공동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경제'란 주제로 안산시 사동 소재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92회 최고경영자조찬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우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글로벌경영위기 여파가 진정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유럽 일부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출구전략과 미중간의 갈등 등 적지 않은 근심거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이날 조찬강연회에는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기업체 CEO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TAEYANG 2010.02~ 2010.04

NEWS

우리 회사에는 지난 세 달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회사의 이런저런 소식... 한눈에 알아보자!



2010.01.29 아이티 지진피해 후원 모금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규모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의 재난 복구 및 재해민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열었다.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인 기금은 지난 2월 22일(화)에 굿네이버스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아이티 지역의 식수, 의약품, 식량 등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재건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0.01.30 (주)동부제철 선재사업부문 Royal 고객사 인증패 전달식

우리 회사 한우삼 회장, (주)동부제철 선재사업부문 이수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제철 선재사업부문 Royal 고객사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수일 사장은 (주)동부제철의 최우수 고객으로서 향후 동반성장의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하고자 Royal 고객사 인증패를 전달한다고 밝히며 인증패를 전달하였다.



2010.02.25 제34회 노조 대의원 대회

우리 회사 송병천 노조위원장 외 30여명과 대덕GDS, 남양공업, TRW 등 외부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5일 제34회 노조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2009년도 주요 활동 보고, 회계감사 보고, 세입세출 계산서 승인을 포함하여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과 노조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원만하게 가결되었다. 송병천 노조위원장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조합'이라는 2010년 목표 아래 '대화하는 조합', '실천하는 조합', '달성하는 조합'이라는 조합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서클 지원 확대, 월 2회 팀별 간담회 등 조합원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10.03.08 창립기념식

냉간 단조 제품 생산 업체인 우리 회사는 2010년 3월 8일 창립 제56주년을 맞이했다. 1954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일괄 공정체제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에 필수적인 고정력 볼트를 비롯한 각종 냉간 단조 제품을 국내 자동차 업계 및 관련회사에 공급하고 있음은 물론 글로벌 경영의 일환으로 미국의 GM자동차와 일본의 마쓰다자동차를 비롯한 해외 유수한 자동차 업체에도 제품을 직접 공급하며, 그 외 일반 냉간 단조 제품도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 3월 8일 진행된 기념식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111명에 대한 표창과 최우수 부서 및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한우삼 회장은 기념사에서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명제가 있다. 태양금속의 미래 100년을 위해 신념을 가지고 태양금속 56년의 역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태양금속의 도약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태양가족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10.03.19 설비기술팀 송진식 반장 정년기념패 전달식

2010년 1월 31일자로 설비기술팀 송진식 반장이 정년퇴임하였다. 송진식 반장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설비기술팀에서 17년간 재직하였다. 한우삼 회장은 정년퇴임식에서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였으며, 감사의 뜻이 담긴 순금 기념패를 직접 수여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2010.03.19 제 45회 정기주주총회

지난 3월 19일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제45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원만하게 가결되었다. 한우삼 회장은 참석한 주주에게 "2010년도는 4%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의 회복,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의 호전 등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자동차 내수 또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유럽판매 회복 지연과 원화 가치 상승 등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해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지만 북미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아프리카,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기필코 2010년 목표를 달성하여 주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훌륭한 경영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인사말에 갈음했다. 한편 2009년 우리회사 매출액은 1936억원, 영업이익 60억원, 당기순이익 24억원을 달성하였다.



2010.03.30 중국 산둥성 치사시 부시장 방문

중국 산둥성 치사시 부시장 일행이 3월 30일(화)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우호교류를 증진하는 자리였으며, 한우삼 회장은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안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다.



2010.04.07 DMAX 방문

지난 4월 7일 DMAX SQE Micheal Fischer와 GMDAT SQE 이규호 대리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2010년 새로 launching된 DMAX 2010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수주한 14종 아이템에 대해 DMAX SQE인 Micheal Fischer이 본사 및 한국 Supplier의 양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2010.04.08~04.09 상해 GM전시회 참석

당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상해에서 열린 'GM-Korea Autoparts Plaza in Shanghai 2010'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내 한국투자 자동차 부품기업의 GM구매 및 중국 내수시장 개척기회를 마련코자 GMDAT과 KOTRA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당사를 포함 총 42개사의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당사에서는 한성훈 부사장, 현성운 전무, 해외프로젝트팀 이제영 과장, 기술개발팀 이충열 과장, 장가항법인 조용훈 부장, 연대법인 장설봉 주임 등이 참가하여 GM China, GM International 등 GM계열의 완성차 업체와 ArvinMeritor, Eaton China 등 글로벌 Tier1 업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상담활동을 벌였다.



2010.04.09 태양금속(장가항)유한공사 신공장 기공식 개최

자동차 조향파트 및 정밀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태양금속공업(주) 중국 현지법인은 사세확장에 따른 중국 장가항법인 신공장 기공식을 4월 9일에 개최하였다. 금번 장가항법인 신공장 건설은 중국 연대법인 1, 2공장에 이어 중국에서 3번째로 건설되는 공장으로 대지 8,000평에 공장동, 사무동, 지원동 등 약 2,400평의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며, 금년 7월말에 완공하여 8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에는 태양금속공업(주) 한우삼 회장을 비롯하여, 배영철 사장, 한성훈 부사와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기공식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10.04.15 만도 방문

지난 4월 15일 업체현황 견학을 위해 (주)만도의 부품구매 본부장 김영승 전무 외 5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간단한 업체현황 보고 회의를 가진 뒤 벤치마킹을 시찰하며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0.04.16 중국 유산시 부시장 방문

우리 회사는 4월 16일(금) 중국 산둥성 유산시 강림개 부시장 일행을 영접하였다. 이번 방문은 강림개 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증진하는 자리였으며, 한우삼 회장은 중국 유산시에 진출한 안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다.



온고지신

옛 교훈속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태양금속 창업의 정신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큰 울림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웅변하고 있다.

에피소드1

“사장님은 가게에서 돈을 안 가져가도 생활이 가능하니 앞으로 1년 동안 가게에서 돈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제가 흥국자전거상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자전거 부품 도매상으로 키우겠습니다.”

1947년 한은영 창업주가 당시 흥국자전거상회 박천택 사장에게 한 말이다. 직원이 사장님 월급을 보이콧 하고 회사에 재투자를 종용한 것이다. 당시 한은영 창업주는 박사장에게 일본에서 소켓공장을 운영하며 익힌 재투자 논리를 제시한 것이었다. R&D 분야 등 오늘날 기업들이 재투자의 중요성을 익히 아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기도 한데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창업초기 연건동 공장의 공작과 앞에 선 한은영 명예회장.



창업초기 연건동 공장 시절 작업광경

에피소드2

흥국자전거상회는 부품 확보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업체간에 물물교환 판매방식을 도입했다. 그때그때 부족한 부품을 조달하는 자재수급 방식을 채택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부품보급망이 형성됐고 회사는 해가 다르게 번창하기 시작했다. 부품업체간에 신용과 친분을 다져둔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의 의미를 과소평가 한다. 꼭 큰 일이 닥쳐서야 "있을 때 잘 할 걸"하고 후회하는 셈. 당시에는 부품 수급이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였던 모양이다. 한은영 창업주는 그런 어려움을 '여유 있는 부품 물물교환'이라는 방식으로 돌파한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평소에 잘하기'였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보이니 사람이 움직인다"는 조금은 평범한 금언같은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었던 것.

에피소드3

“흥국자전거상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사장님께서도 판매대금에서 생활비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저 역시 앞으로 2,3년 고생할 각오하고 월급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은영 창업주는 사장에게 또 한 번 월급을 가져가지 말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의 월급과 함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울 수 있을까. 회사는 1년 반이 지나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역경과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모양이다. 또 그 마음에 깃든 결기가 성공을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것, 바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溫故知新

배영철 사장의 경영혁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관하여...



배영철 사장께서 부임하신 후 2010년도 경영방침 목표 달성을 위해 1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프로젝트 추진 팀원들도 목표달성에 대한 열의를 다지고 있다.

경영방침	프로젝트명
품질우선	1. 문서관리/표준화
	2. 생산/품질관리
	3. 협력업체 품질관리
원가혁신	4. 가동효율
	5. 금형관리
	6. 포장효율
미래창조	7. 구매회의
	8. SCM
	9. 미래창조
	10. 품질회의
	11. 협력업체 공급관리 및 생산관리

각 프로젝트별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문서관리/표준화 프로젝트

회사내에서 문서의 체계적인 집대성을 통한 업무 접근의 용이와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 표준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질 향상과 공백을 최소화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 현재 각 팀별로 사규, 절차서, 업무 및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2. 생산/품질관리 프로젝트

현재까지 발생한 품질불량 유형 분석 및 원인, 대책을 수립하고 팀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불량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보자고 생산본부와 품질본부가 주치가 되어 추진중인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진행 이후 2009년도 대비 불량률이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좀더 품질에 대한 마인드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3. 협력업체 품질관리 프로젝트

협력업체 품질불량에 대한 원인 및 개선대책, 유효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불량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최근 직접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회사에 공급되는 재공품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외에 수출되기 때문에 완벽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강조 및 당부하였다. 협력업체에서 공급되는 중요부품을 지정하여 검사과정을 거치고 SCM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가동효율 프로젝트

생산팀에서 가동되고 있는 설비의 종합효율, 가동율 향상을 위해 생산 지시 제품을 구분, 소재경에 따라 단순화 작업지시로 금형교환 및 부분교환시 발생하는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가동 항목을 세분화 관리하여 관리자를 포함하여 비가동 요인도 감소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5. 금형관리 프로젝트

금형의 적정재고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및 금형수명 연장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금형납기 단축, 금형업체 개발 및 관리를 병행하며 품질 좋은 대만제 금형을 사용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6. 포장효율 프로젝트

포장능력 향상과 선별기의 비가동 저해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종합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별기 신규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인원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 구매회의 프로젝트

회사의 구매업무를 전담하는 구매팀에서 전사적인 지원방안 검토 및 적기에 원부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하고 있다. 또한 원가절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효율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SCM 프로젝트

협력업체와 우리 회사간의 원활한 업무관계 유지 및 납품시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영업소 물류전산화를 추진하여 재고 공유를 통해 추가 생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가 될 것이다.

9. 미래창조 프로젝트

우리 회사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 및 비전을 다루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가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10. 품질회의의 프로젝트

사내 품질경영시스템 및 신뢰성 향상과 시험장비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ERP에서 검사이력을 구현 및 확인, 자동검사 장비의 신규 투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 협력업체 공급관리 및 생산관리 프로젝트

생산관리, 구매, 품질, 영업이 참석하여 제품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의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원활한 제품 공급을 통해 영업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올해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배영철 사장의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구축을 통해서 2010년도 경영방침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11개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전사원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동참하여 전사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기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고유가에 따른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서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환경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가 있다.

이중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는 차량 운행 시 환경오염원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자동차라고 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 핵심 부품의 품질, 가격경쟁력 등의 주요 현안만 개선된다면 향후 자동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개념 및 특징은 표 1에 정리하였으며, 본 사보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국내외 개발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기자동차 (EV: Electric Vehicle) 란?

화석 연료(가솔린, 디젤)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차량 운행시 환경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무공해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차량 구동은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방식이며,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핵심 부품 기술 개발”과 “차량 운행 인프라 구축” 두 가지이다. 핵심 부품으로는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이 있으며 이 부품들은 이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적용에 큰 문제점이 없으나, 전기자동차의 주요 동력원인 배터리의 용량, 중량, 가격 등의 문제는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더불어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배터리 급속충전기술 및 충전 플러그인 인프라 등이 구축되어야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2.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정부 발표

정부에서는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 선점”을 비전으로 2011년 전기자동차 양산체제를 구축, 20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10% 달성,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시속 60km 이하의 저속 전기자동차가 도심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4월부터 전남 영광군, 전남 순천시, 충남 군산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일부 지역 등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운행 구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고시하여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일반차를 고속전기차로 개조해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고속 전기자동차 안전기준도 국토해양부에서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표1. 친환경자동차별 개념 및 특징

구분	하이브리드차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PHEV)	전기차 (EV)	연료전지차 (FCEV)
동력계 구조				
구동원	■ 엔진+모터	■ 모터 ■ 엔진(방전시)	■ 모터	■ 모터
에너지원	■ 화석연료 ■ 전기	■ 전기 ■ 화석연료(방전시)	■ 전기	■ 수소
특징	■ 구동시 내연기관/모터 적절히 사용시 연비향상 ■ 별도 인프라 필요없음 ■ 배터리 전용 주행 5km 내외	■ 단거리 전기로만 주행 ■ 장거리 주행시 엔진 직구동 ■ HEV 대비 배터리 용량 증대(주행거리 60km 내외)	■ Zero-Emission (무공해) ■ 현재 근거리 주행만 가능 (100km 내외)	■ 수소/산소반응을 통한 전기생산으로 모터 구동 ■ Zero-Emission (무공해) ■ 수소탱크, 스택 등 장착 ■ 시스템 고가
구매비용	다소 고가	다소 고가	고가	초고가
운영비용	다소 저비용	다소 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운전편의	내연기관 대비 동일	내연기관 대비 동일	내연기관 대비 불편 (충전 필요)	내연기관 대비 불편 (수소충전 필요)
적용 사례	■ 프리우스(도요타) ■ 시빅(혼다) ■ 아반떼LPI (현대)	■ Hymotion(도요타) ■ Sprinter Van(벤츠)	■ i-MiEV (미쓰비시) ■ e-Zone(CT&T)	■ 스포티지, 모하비 (기아, 개발 중)
시장성숙시기	현재 대표차종 판매 중	2010년 ~11년 이후	2015년 이후	전망 어려움

(출처 : 2010 글로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개발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 중, 데이코산업연구소)

3. 국내외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

1) 북미

Big 3社 모두 2010~2011년 사이 양산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전기자동차보다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 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GM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에 집중

② FORD :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

③ Chrysler : 현재까지 개발에 가장 뒤처져 있으며 계획도 추상적임

2) 일본

미국, 유럽지역의 업체들보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선두 업체는 미쓰비시(Mitsubishi)이며, 또한 일본에는 배터리 시장을 리드하는 파나소닉(Panasonic), 산요(Sanyo) 등이 있어 전기자동차 활성화가 다른 지역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① 도요타 : 전기자동차 출시를 2010년 계획 중이나 전기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양산을 위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느린 것으로 예상.

② 미쓰비시 : 2009년 6월부터 i-MiEV을 양산 판매 중에 있으며 전기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3)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비도 높은 디젤엔진의 성능개량을 위하여 Clean Diesel 개발에 집중하였으나,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자동차로 급선회 하면서 전기자동차 개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임

표2. 각 업체별 전기자동차 비교

모델명	i10	e-Zone	시보레 볼트	i-MiEV	FT-EV II
이미지					
제조사	현대(차)	CT&T(한국)	GM(미국)	미쓰비시(일본)	도요타(일본)
양산시기	2010년 하반기	양산 중	2010년 11월	양산 중	2010년
차체타입	5도어 해치백	3도어 경차	5도어 해치백	5도어 해치백	3도어 해치백
전기모터	49kw	7kw	111kw	47kw	-
길이	3,655mm	2,570mm	4,500mm	3,395mm	2,730mm
폭	1,595mm	1,400mm	1,800mm	1,475mm	1,680mm
높이	1,550mm	1,560mm	1,430mm	1,600mm	1,490mm
최고속도	200km	60km	160km	130km	100km
배터리	16kwh(리튬이온)	72V-140Ah(리튬)	16kwh(리튬이온)	16kwh(리튬이온)	-
충전시간	5시간	6~7시간	3시간	7시간	7.5시간
최대주행거리	160km	70km	-	120km	90km

(출처 : 2010 글로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개발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 중, 데이코산업연구소)

- ① BMW, 폭스바겐 : Clean Diesel 개발에서 전기자동차로 방향 선회
- ② 푸조 : 일본 미쓰비시 아이마브(i-MiEV) 차종을 수입 판매 계획 중
- ③ 벤츠 : Smart 100대를 시범 운용할 계획 중
- ④ 르노 : 200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전기자동차 4종 발표

유럽 업체들도 전기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2~3년 내에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한국

현재 양산되는 전기자동차 (CT&T社, e-Zone)는 골프장, 공장 등 일정 구역 안에서 운송,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저 속용 경차가 대부분이며, 최근 일부 도시에서 전기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법규가 개정되었다.

① 현대(차) : 2010년 하반기 양산을 계획 (차종: i10)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에 따라 양산 시점을 선정할 계획.

② GMDAT, 르노삼성 : 적극적인 개발 자세를 보이지만 각각 르노, 북미 GM과 연계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차)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차량의 엔진, 변속기, 동력기관의 부품 없이 배터리 전력을 이용한 전기모터를 구동하여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사의 엔진, 변속기 등의 주요 Fastener류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되면 사용되지 않으며, 향후 당사의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부품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 유일의 민간 웨스너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위상

KO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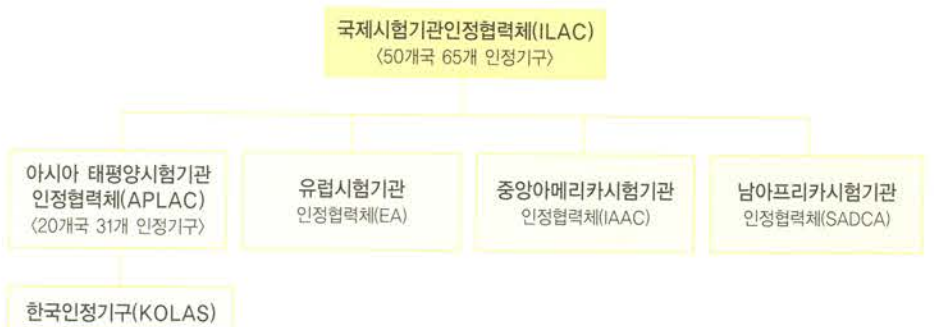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진전 속에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 속에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발전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의 공인성적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Accreditation Organization)가 해당기준(KS Q 17025, 17020)에 따라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 및 시험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인정제도이며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호인정협정(MA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교정기관 및 국제시험기관 인정제도를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인정, 시험기관인정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적합성평가제도과)에서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 인정제도는 교정/시험/능력의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국내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등의 내적인 필요와 무역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와 적용규격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 유지와 측정결과의 신뢰성 요구, 선진국들의 자국산업과 소비자 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에 대한 대처를 위한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의 외적인 요인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다.



[적합성 평가제도의 국제적 인정 체계]

KOLAS 인정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 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KOLAS 인정제도는 국제적인 시험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KOLAS는 설립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 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 시험기관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 결과, KOLAS 공인시험 및 교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10월 아시아 태평양 시험기관 인정협력체 (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하는데 이어, 2000년 11월에 국제 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와 MRA를 체결, 2001년 5월에는 교정 분야에 대해 ILAC MRA에 공식 서명하여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2009년 7월 APLAC MRA에는 20개국 31개 인정기구, ILAC는 50개국 65개 인정기구가 가입해 상대국의 공인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교정기관, 시험기관을 평가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에 태양금속공업(주)는 KOLAS로부터의 인정을 획득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시험, 교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시험, 교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확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시험, 교정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WTO 체제 하에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공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소비자, 구매자, 제조업체 등)도 제품의 품질향상과 질 좋은 제품의 공급, 제품 및 업체의 신뢰성 향상, 경쟁력 확보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OLAS 인정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 교정기관자격을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이는 시험, 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가 국제시장에서 세계적인 시험기관들의 성적서와 동일하게 통용되어 태양금속공업(주)는 명실상부한 국제공인시험, 교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KOLAS 인정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어, 그간의 산업체 중심에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지자체 등 영역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태양금속공업(주) 또한 국내 산업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총 352개 기관으로 그 중에서 웨스너(볼트, 너트, 스크류 등)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는 2개 기관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인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구로)이 있고 민간기관으로는 태양금속공업(주)가 국내 유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총 184개 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총 352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관은 약 38개 기관만이 운영하고 태양금속공업(주), 르노삼성(사), (주)만도, S&T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5개 기관만이 자동차 분야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서는 KOLAS운영에 대해서 5개 기관만이 국제공인교정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만큼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 1 역학시험
 - 1.001 금속 및 관련제품
 - 1.012 기계요소
 - 1.013 물리적 시험
- 2 화학시험
 - 2.001 철강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 102. 선형치수분야
- 105. 복합형상분야
- 106. 기타길이관련량분야
- 202. 힘분야
- 210. 경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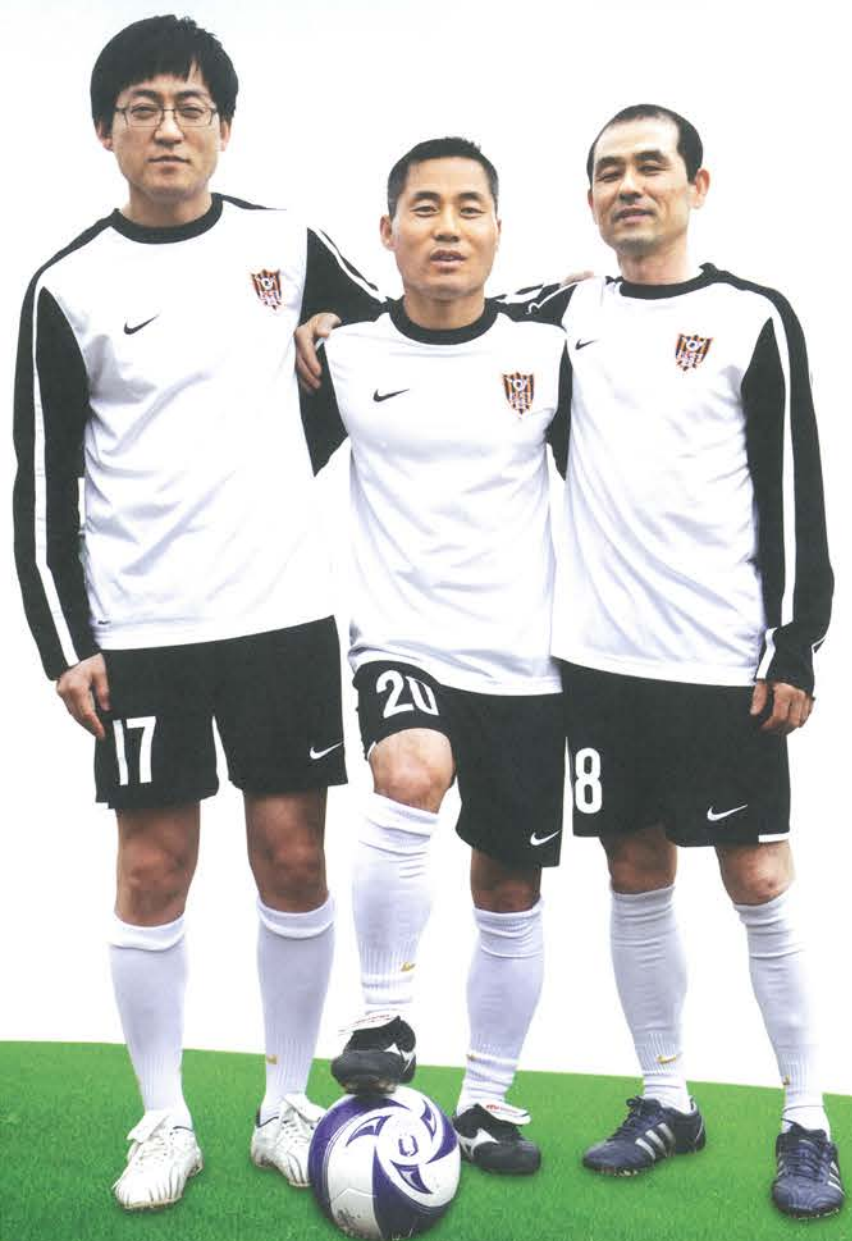
국내 웨스너 (볼트, 너트 스크류 등) 시험 가능 기관

- 민간기관
태양금속공업(주)
- 공공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인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구로)

축구!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FC SUN 우리는 태양의 축구 동호회

2009년 12월, 여느 동아리가 그러하듯 친목으로 시작해 친목으로 사라져 버린 기존의 축구 동아리 상록수를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결성된 FC SUN.
띠 동갑을 2바퀴 돌고도 남는 세.대.차.이.를 가뿐히 뛰어 넘는데 축구만한 운동이 있을까를 증명하듯 FC SUN에는 20대에서 5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다.



인연..

태양 가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축구가 아니었다면 이름 석 자 나눌 인연도 아니었을 요즘 세상에 2바퀴 띠 동갑도 호형호제가 되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이 총 50명 정도 되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축구 아니었으면 서로 이름도 모르고 회사생활 했을 텐데, 지금은 서로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정말 좋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겠어요.”

월화수목금토축구일

주말이면 4주구 농안 운동장에 모여 어김없이 경기를 뛰는 말에 과연 가족들 반응은 어떨지...본인들이야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축구모임이지만 가족들 눈에는 월화수목금토도 모자라 일요일까지 빠져나가는 패섬죄가 성립하고도 남을 듯한데?
“집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들죠. 그래도 축구는 해야겠는데 어찌겠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다면 넓은 편인데 그 중에 축구로 맺어진 인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업무가 주·야간으로 돌아가며 있는데 야간 근무할 때는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축구하러 가요. 축구장 가서 한 경기 뛰고 나면 씻고 점심 먹을 시간인데 점심 먹고는 바로 집으로 가죠. 그때부터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마트도 같이 가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잘 맞춰줘야 하거든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FC SUN 멤버들의

축구는 단어 하나로 얼굴에 혈색이 도는 FC SUN의 멤버들. 남다른 축구사랑만큼은 국가대표급이다.

“성취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에너지
그 힘의 원천에 축구가 있다.”

얼굴빛은 스트레스도, 잔병치레도 없을 것처럼 활기차다. 단단한 사과처럼 싱그러운 기운을 간직한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으니 바로 축구란다. 일주일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평소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봐도 축구만한 체력단련운동이 없다고 외치는 멤버들에게 축구는 화분에 뿌리는 물만큼이나 중요했다.
“힘들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들 중에 환갑이 넘어서도 축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 분들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갖죠.”

승리, 태양의 이름으로..

애당초 승리를 위한 축구를 꿈 꾸는 것이 아니었기에 ‘승부에 목숨 걸지 않고, 어디까지나 수준에 맞는 축구를 추구한다’ 였지만 막상 협력업체 팀과 경기를 뛸 때면 발바닥에 땀 나도록 승리를 향해 뛰게 되는 마음은 바로 태양의 이름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에 Y팀하고 첫 경기를 했는데 3:2 로 이겼어요.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가 경기를 뛸 때는 그냥 재미로만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FC SUN’ 태양금속의 명예를 걸고 뛰게 되는데 다른 회사 팀이랑 경기해서 지면 웬지 회사 명예를 떨어뜨리게 될까봐 더 열심히 뛰게 되는거죠.”

축구가 나에게 준 것들...

자신감, 성취감, 사람, 그리고 등번호.
축구가 내게 준 것들을 끝없이 열거하는 멤버들의 모습에서 그들에게 축구란 무엇일까 궁금했다.
“종교!”
“축구가 종교라고요? 하하하”
“네. 정말 종교예요~ 등번호 38번. 내가 선택한 번호예요. 재미로 하지만 38번이라는 등번호 아래 건강도 얻고 사람도 얻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제가 불면증이 좀 있는데, 다음날 오전에 경기가 있으면 밤에 눈을 감고 경기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죠. 그리고 공을 차고 나서도 오전에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밤이면 잠이 아주 잘 와요. 이 정도면 종교 맞죠~?”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정을 나누는 FC SUN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부러움이 밀려온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FC SUN의 멤버가 될지 궁금했다.



회장 출하관리과 김강식 소장(등번호:20)
감독 경영환경팀 조운호 소장(등번호:38)
홍보 영업팀 윤용석 과장대리(등번호:17)

“태양인이면 그 누구라도 환영해요. 회사생활에서는 협동심이 필요한데 축구만큼 협동심을 길러주는 운동이 없어요. 공을 찬다는 것 자체가 단체 생활과 연결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운동장에서는 직급이 없어요. 서로 다 형·동생이죠. 함께 공을 차면서 벽을 허물고 오해를 풀고 하다보면 다 똑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등번호 17번, 형님들 말씀에 고개만 끄덕끄덕 하던 홍보부장님이 맞장구를 친다.
“때로 공을 잘못 차면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일 뿐이에요. 오히려 공을 잘 찼을 때 칭찬 한마디 들으면 정말 그만한 위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혹 오버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다 추억이고 기쁨이죠. 회사 일 말고 사적인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가족이에요.”

뛰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지다 보면 깨질 때도 있다. 우리네 인생이나 축구나 넘어지고 깨지다 보면 아픔도 있고 간혹 상처도 남지만,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해볼 맛이 나는 것 아닐까. 축구를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멤버들의 말 속에서 인생을 배운다.

FC SUN멤버들에게 축구란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위한 조미료 같은 거였다. 이런 그들에게 함께 운동장을 뛰어야만 멤버겠는가. 이미 그 마음을 응원해주는 제 2의 멤버들이 그들 마음 속에 있었다.
“언젠가 생산 1팀의 김봉명 기장님께서 ‘야, 서클 잘 만들었다. 잘했어!’ 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기분이 최고였어요. 우리는 또 의리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더 충성심이 생기더라고요. 하하하.”



20여 년 전 품은 꿈으로 2010년, 후배들에게 꿈의 전도사가 되다.

태양금속공업(주)의 현성운 영업본부장

한국을 대표하는 단조회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태양금속'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현성운 영업본부장. 자심감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에는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아온 그의 인생철학과 리더십이 담겨져 있다.

"영업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객입니다. 성공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업의 기본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업무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성운 본부장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자동차업계에 잔뼈가 굵은 '현장통'이다.

그런 그가 '태양금속'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사회 초년생에 만났던故 한은영 회장을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일에 대한 집념 어린 모습은 사회초년생이던 저의 롤모델이었죠. 그때 결심했죠. 언젠가는 태양금속에서 저의 꿈을 펼쳐보겠다고요. 지금 저는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조직관리에 잘 활용한다면 조직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는 30여 년 전故 한은영 회장에게 느꼈던 감동을 후배들에게 '좋은 직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물려주고 싶어 한다.

직원들을 최대한 믿어주고 풀기 힘들어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리더십을故 한은영 회장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분 덕분인지 우리 태양금속 가족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우리 영업본부가 최선두에 있을 겁니다."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글'과 같은 '영업현장'에서도 그는 부하직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한다. 대화와 소통으로 영업부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화된 영업사원을 육성하고 다양한 활동과 마케팅 능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영업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신껏 일하라'입니다."

영업부 직원들은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 한 직원이지만 일단 사무실 밖에 나가면 그 때부터 회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자신이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현본부장의 이런 마인드는 곧바로 영업실적으로 반영됐다. 현본부장이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영업실적이 몰라보게 상승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것이 곧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태양금속'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손꼽힐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현본부장은 '태양금속'이 단순히 근무하는 '직장'이 아닌, 영업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직장'을 만들고자 한다. <개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성장이고, 회사 성장이 개인의 발전>이라는 취지에서다.

그의 이런 리더십은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철학'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모이면 회사 전체가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게 되어 조직 전체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정글과 같은 영업현장에서 1등으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현성운 본부장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영업마케팅을 통해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태양금속의 기술이 세계 기술의 표준이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장을 공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각 공장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 5대 단조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파악을 통한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야말로 최고의 기술임을 잊지 않고 있는 현성운 본부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매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지칠 줄 모르는 현성운 영업본부장의 추진력은 후배 영업사원들에게도 귀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 영업본부장은 태양금속 내 '영업본부 만행'이자 '멋쟁이 영업본부장'으로 통한다. 영업본부 최고 수장이지만 "원칙과 배려를 몸소 실천해 영업사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역량과 어디서든 바른 몸가짐과 매너를 가진 영업본부장"이라는 애기를 듣는다.

그런 현본부장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아쉬운 점은 내심 존재한다.

"요즘 세대는 제가 젊었을 때 꿈꾸지 못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조직관리에 잘 활용한다면 조직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 도전의 문화로 기업문화를 변화시켜줄 수 있다면 태양금속이 국내 최고 파스너 회사를 넘어 세계 속의 단조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태양금속 56년의 역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비전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 영업본부가 선두에 설 것입니다."

현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역경이 다가올텐데 어떻게 역경을 헤쳐 나갈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우리 앞에 곧 펼쳐질 새로운 반세기, '개인, 가족, 회사'의 꿈을 향해 멀리 뛰자"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기본과 원칙’의 반석 위에 세워진 태은상공

23년 동안 태양금속에서 근무하고,
17년 동안 태은상공을 경영하며 보낸 40년.
그렇게 나사 제조로 외길인생을 걸어 온
기본과 원칙의 장인 오낙현 대표를 만나다.

‘기본과 원칙’의 1993년, 태양금속과 함께 동고동락
반석 위에 세워진 태은상공 한 시기도 꼬박 23년이 되던 해에
오낙현 대표는 태양금속으로부터
제조업 제의를 받았다. 당시 집 한 채 담보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직원들 월급이나 제대로 챙겨줄 수 있겠느냐며 가장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 오대표의 아내였다. 그러나 그런 걱정도 잠시, 다
시 오대표를 믿어주고 힘을 준 것도 그의 아내였다. 어쩌면 그녀
역시 태양금속에서 성장한 오대표의 23년에서 희망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태은상공이라는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작명소에 가서 회사이름을 받아서 오더라구요. 두 가
지 이름을 받아왔는데 그 중 하나가 ‘태은’이었어요. ‘태은’ 이
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면 직원들 월급은 잘 챙겨줄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이 마음에 꼭 들었고, 태양금속 창업주이신 故 한은영
명예회장이 저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며 ‘태은상공’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7년,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경영철학 아래
오대표는 태은상공을 건실히 이끌어 왔다. 고객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태은상공의 반석이었다. 기본과 원칙이 없는 사회나 가정은 망망
해질 수가 없다는 오대표의 확고한 철학이야말로 지금까지 태은
상공을 키워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이겨낸 힘!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환파
가족애와 품질개선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무너져가
는 상황에 오낙현 대표 역시 위태로
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 위기 중에도 태은상공은 곳곳이 버티내고
말았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 그 힘을 오대표는 태양금속과 함께
한 가족애와 품질개선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말 그대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태양금속과 서로를
믿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 믿음과 헌신을 저는 가족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은 태양금속을 가족이며 한 식
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로 치면 영외부대라고 할 수 있죠.”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태양금속에서는 이전과 같은 수주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09년, 물량은 다시 확보 됐지만 원자
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결국 제자리걸음이었다. 그 상황에서 직원
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줄 수 없었던 오대표는 은행대출을 지급
받았고, 이 사실을 안 직원들 대부분이 오히려 오대표에게 힘을
주었다. 진정한 가족애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직원 급여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죠. 그러자 직원
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정상급여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물자절
약을 함께 해주었고, 때마침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기에 단 한명의
구조조정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꾸준한 품질 개선과 연구로 현대/기아차의 2차
이후 협력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SQ(Supplier-Quality)인증
에서 2003년에는 C등급, 2006년에는 B등급을 받으며 제품경쟁
력을 키워온 힘이 경제위기에 제 힘을 발휘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태은상공의 기술적인 부분, 노하우
지속 발전 가능한 관계를 총동원해 태양이 원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태양금
속의 가족으로서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세계로 뻗어나가
는 것! 그 푸른 희망을 품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오낙현 대
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만드는 나사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잖아요? 기본과 원칙
이 지켜지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은상공은



“태양금속과 서로를 믿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 믿음과 헌신을 저는 가족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나 저희 직원들은 태양금속을 가족이며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금속의 공정부서입니다. 태양금속의 발전은 태은상공의 발전
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파트너로서 태양금속과
지금처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우리 태은식구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태은상공
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경제불안, 고용불
안 등 대내외적 위기들로 인해 잇따른 도산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불경기에서 인원감축 없이 사람과 사람의 의리를 외치는 태은상
공이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의 귀감이 아닐까.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가정과 사회가 명랑해진다고 말하는 오낙
현 대표와의 인터뷰동안 사원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양금속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 안에서 40년
의 세월을 제조업에 몸담은 장인의 얼굴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장인의 얼굴에서 사람에 대한 정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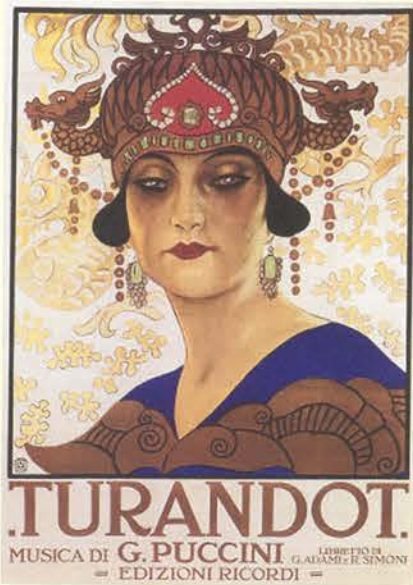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야말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키
워드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는 태은상공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
쉽과 가족애를 구현하는 기업이라 하겠다. 🌱

봄향기와
잘 어울리는
오페라 음악

화려한 상들리에 조명이 없어도 좋다.... 은은한 불빛이면 어떤가. 귀족같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지 않아도 상관없다... 꾸밈없는 평상복이면 어떤가.

진한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맘때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뺨을 스치며 지나는 시원한 밤공기를 마셔보자. 그리고 향긋한 계절의 향기에도 취해보자. 테이블엔 영롱한 유리 글라스와 인색하지 않을 정도만 채워진 진홍색 와인 한 잔. 그리고 여기에 감미로운 음악까지 흘러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사람 사는 맛이 아닐까.

뒷동산 순백의 꽃들이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밤,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 곡들을 들어보자. 어떤 때는 강렬함이, 또 어떤 때엔 달콤함이 요즈음의 밤공기와 여간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마치 봄비를 맞은 것처럼 기분이 촉촉해지고, 계속 그 분위기에 젖고 싶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좋아하는데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섬세한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리아 몇 곡을 골라본다. 혼자 듣기 아쉬운 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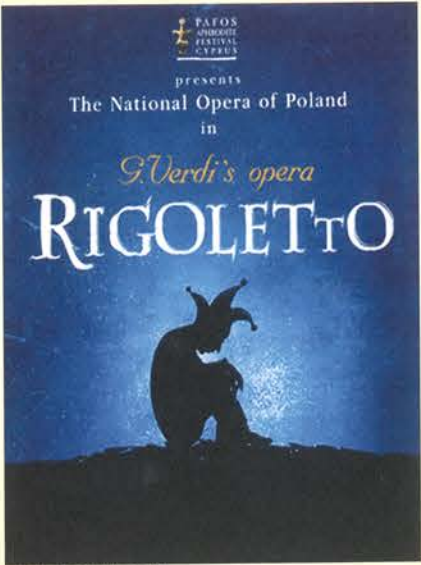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잘 알고 있듯이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오페라. 푸치니가 이 오페라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자 푸치니 제자들이 완성한 오페라이다. 아리아 4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곡인데 “밤이여 사라져라, 별은 꺼져라. 동이 트면 내가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중국 공주를 차지하기 위한 주인공 칼라프의 강렬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담겨진 이 곡을 테너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색으로 들어보면 더욱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

Puccini
Turand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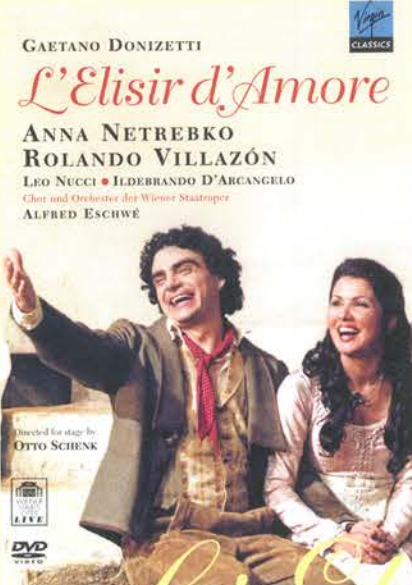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는 3막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16세기 이탈리아 만토바가 배경으로 베르디의 중기의 개막을 장식한 걸작으로 꼽힌다. ‘리골레토’ 3막 중 주요 아리아인 ‘여자의 마음’은 주인공 질다가 아버지에게 연인의 용서를 간청하고 있을 때 병사로 변장한 만토바 공작이 여관으로 들어가며 부르는 다소 긴장감이 내면에 흐른다. 파바로티의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명곡이다.

Verdi
Rigoletto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탈리아의 작곡가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외젠 스크리브의 미약(婦藥)을 바탕으로 작곡한 것으로 1832년 밀라노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하염없는 내 눈물 뺨 위를 흐르네...”로 시작하여 “나는 너를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로 끝나는 이 아리아는 서정적이면서 슬픈 단조 멜로디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니체티의 아리아 중 명곡으로 꼽히기도 하며, 감미로운 멜로디에 파바로티의 빛나는 기교가 더해져 더욱 돋보이는 곡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Donizetti
L'Elisir d'A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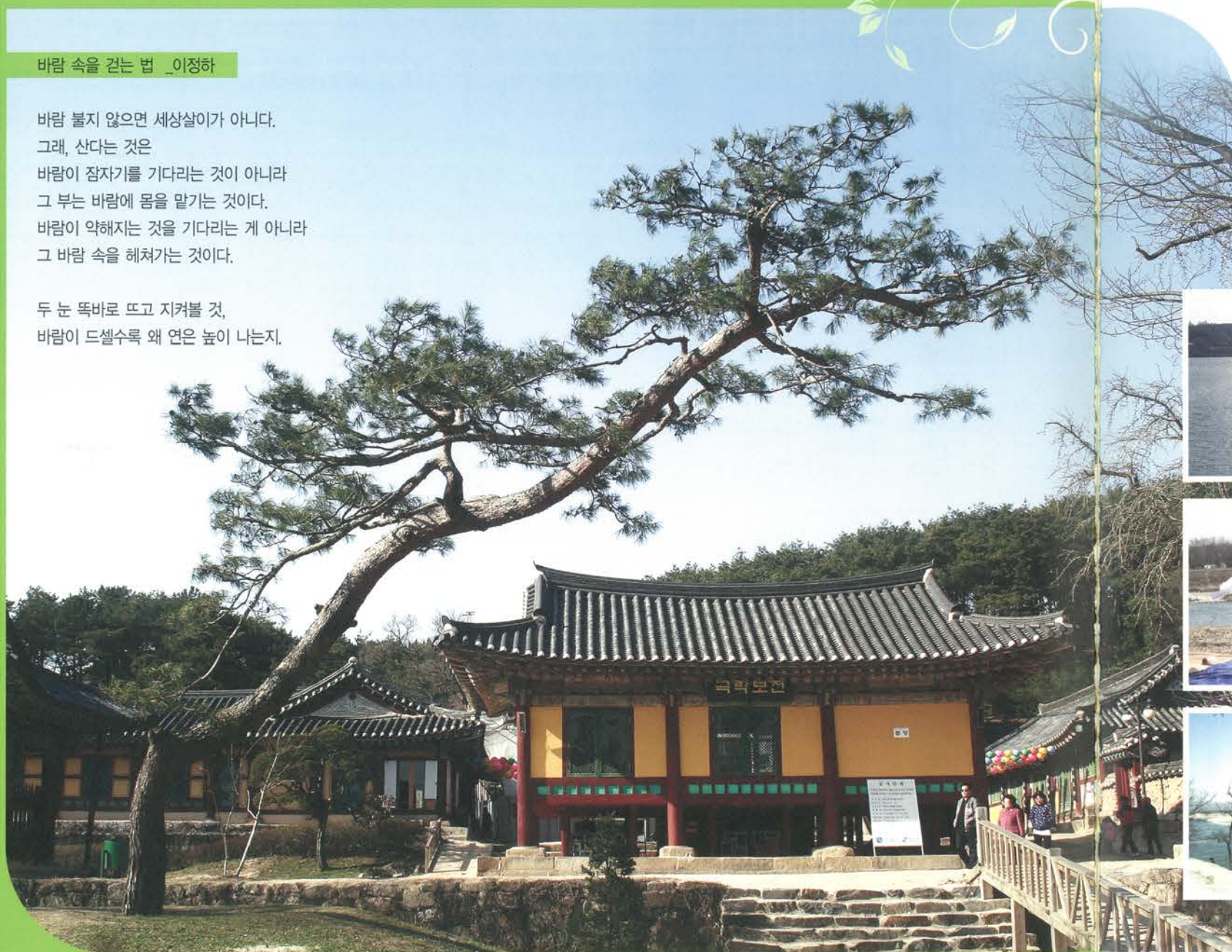


여주 남한강(여강)을 따라 신록사에 발길이 머물다.

바람 속을 걷는 법 _이정하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잡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어린님 이리 오시어 쉬어 가세요.
그대 마음 아눈 이 두구겔트요.
바람 부는 강가에서 물 따라 바람 따라
픽워 보내니 어린님 마음 위로하는
길이 되지요.

시인은 말한다.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것이라고.

도시에는 매일매일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숙명처럼 다가오는 고민의 연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게는 틈이 필요하다. 바람을 맞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비늘과 마주할 찰나의 틈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 틈을 찾아 발길을 따랐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봉미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신록사.

잔잔히 흐르는 남한강의 모습만큼이나 고요한 사찰의 위엄에 지나는 발길들도 점잖아 지는 곳.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지금의 절터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 일
러준 후 사라지니, 그 말에 따라 연못을 매워 절을 지으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원효대사가 7
일 동안 기도를 올리며 온갖 정성을 드렸고, 비로소 9마리의 용이 승천하여 그 곳에 절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설과 함께 천년을 지켜온 곳이니 불교계의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귀하게 여겨지는
곳이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번덕을 부리며 찬 기운을 내던 날에도 신록사를 찾는 발길들은 끊이지 않는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그 길을 따라 파란 눈의 서양인도, 고사리 손을 내밀어 따르는 어린 아이도 백
발이 선연한 노인도 모두가 한 길을 걷는다.

그리고 모두는 천년의 사찰과 이 땅의 젖줄이 흐르는 남한강 사이를 걸으며 또다시 천년의 역사에
동참한다.

고단한 삶 속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필요 할 때, 발길 따라 마음이 머무는 대로 길을 떠나자. 여유
가 있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르다 보면 여유가 생긴다.

봄이 끝날 무렵. 다시, 푸른 잎사귀들이 까르르 흔들거리며 돌아날 채비를 한다.

그 푸릇한 싱그러움이 만연할 즈음, 부유하는 우리네 삶의 고민과 고단함을 뒤로하고 여강을 바라
보고 자리한 신록사 그 고요한 길에 발걸음을 옮겨보자.

나의 마음이 그러했듯이 그대의 마음도 머물러 갈 수 있으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

서울 → 성남 → 광주 → 이천 → 여주시내 → 신록사





태양은 세계 500大 기업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